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도자료 | 희망을 위한 LH의 약속, Life with Hope

배포 2026. 10.11.(일)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대규모 신속 공급으로 주거안정 총력

- 7월 제도개선 이후 수도권 신축매입 접수물량 63% 증가, 올해 수도권 4만호 연내 착공
- 역세권 우수 입지, 저렴한 주거비로 입주수요 몰려… 작년 서울 청년 경쟁률 131대 1
- 향후 3년간 서울 전 지역 25개 자치구에 2만호 이상 집중 공급(입주자 모집)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 사업을 가속화 한 결과, 수도권 신축매입 약정 접수 물량이 약 63%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2만 호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1. 제도개선 · 인력 확충으로 수도권 신축매입 공급 속도 제고

□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신축주택(매입약정)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착공 후 1~2년 내 입주가 가능해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의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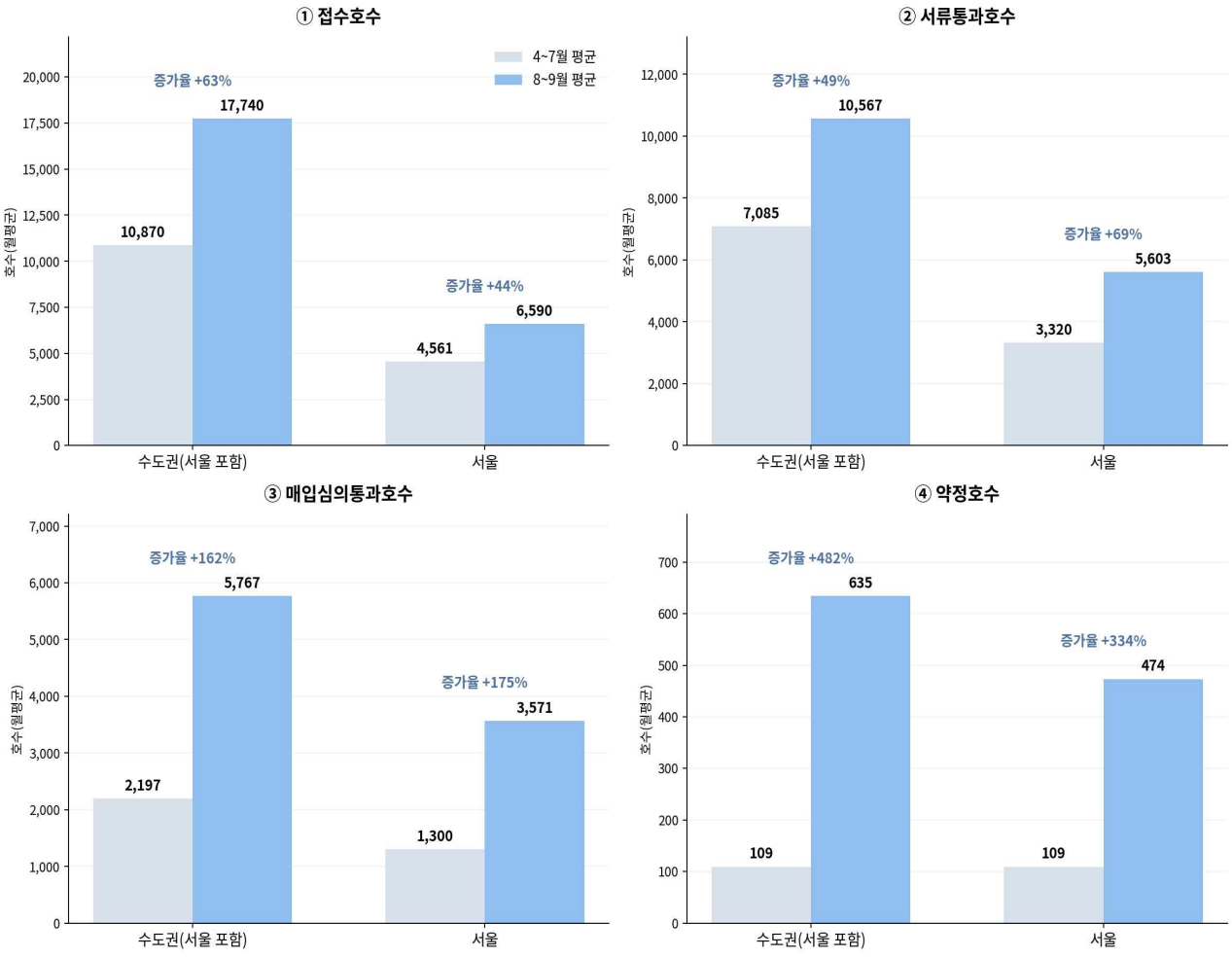
○ 현재 LH는 전국 20.7만 호(수도권 11.3만 호, 서울 3.4만 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관리 중이다. 특히,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약정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도권 4.4만호, 서울 1.1만호 실적을 달성해 확고한 공급 기반을 다진 바 있다.

□ 올해는 정부의 5.22 주택공급대책('26~'27년 수도권 신축매입 6.2만호)에 발맞춰, 기존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을 정비했다.

○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 제도개선을 7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이성훈 사장 취임 직후 수도권 실무 인력을 연초 199명에서 83명 보강한 282명을 배치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연중 업무 공백이 없도록 비정규직 62명을 11월까지 우선 채용하여 즉시 실무에 투입하고, 향후 업무량을 감안하여 비정규직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 그 결과 8월 이후 수도권 월평균 접수 물량은 제도개선 전(4~7월) 대비 63% 증가했으며, 서류 통과는 49%, 심의 통과는 162%, 약정 체결은 482% 증가했다. 서울 지역 약정 체결도 334% 늘었다. LH는 올해 약정 물량 중 수도권 4만호, 서울 1만호 이상을 연내 착공해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 '26년 신축매입 신규공고분 절차별 월평균 호수 비교 : 수도권 및 서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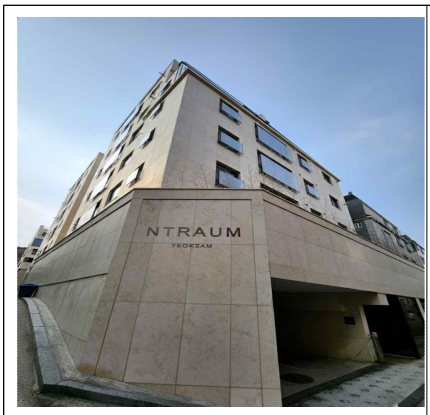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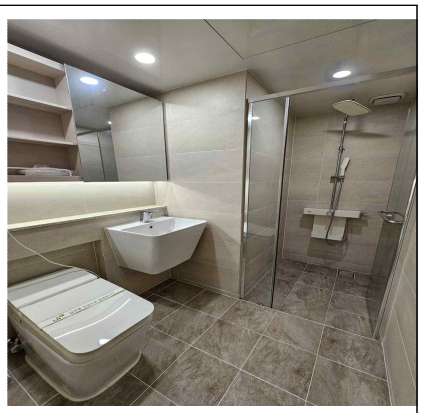


2. 우수 입지·저렴한 주거비 수요 증가…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 131대 1

□ 도심 역세권 중심의 우수한 입지 조건과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매입임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 신혼·신생아 유형의 경쟁률은 2020년 0.9대 1에서 2025년 6.7대 1로 7배 이상 증가했다.

○ 일례로 지난 6월 역삼동에 공급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방 2~3개 구조를 갖추고 역삼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도보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가 있어 2호 모집에 128명이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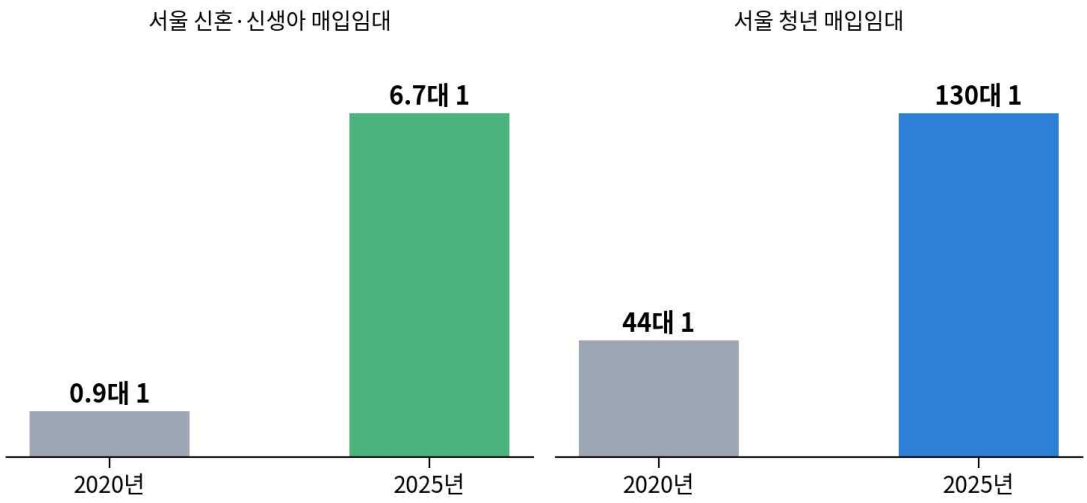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

		
전경 사진 (건물 외관)	주거 공간(세대 내부)	욕실 공간(세대 내부)

○ ‘신혼·신생아’ 유형은 소득·자산에 따라 시세 대비 30~40% 수준의 Ⅰ유형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Ⅱ 유형으로 나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올해 총 5,171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중 약 58%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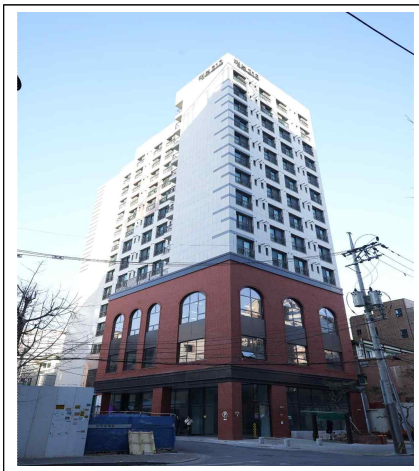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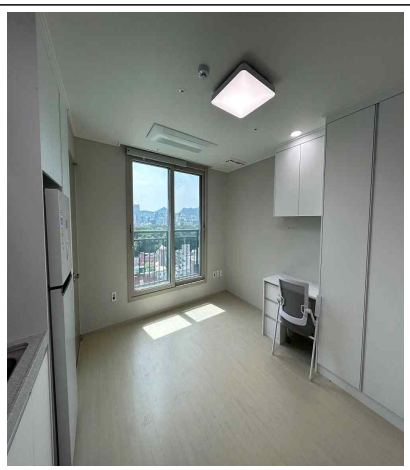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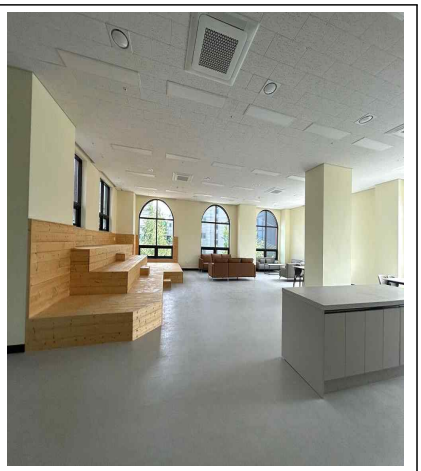
□ 주거비에 민감한 청년층의 선호도는 더욱 높다. 서울 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2025년 130대 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와 100~200만원 수준의 보증금, 빌트인 집기 등이 주요 요인이다.

< 서울지역 LH 청년 매입임대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경쟁률 >



○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7분거리에 위치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증금 100~200만원, 월 임대료는 40~60만원 수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1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다. LH는 올해 전국 총 5,522가구(수도권 약 68%)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 (건물 외관)	주거 공간(세대 내부)	공용 공간 (커뮤니티 시설)

3.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20,528호 공급 추진

□ LH는 향후 3년간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에 총 20,528호(연평균 약 0.7만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청년 14,558호(70.9%), 신혼부부 3,398호(16.6%), 기타 2,572호(12.5%)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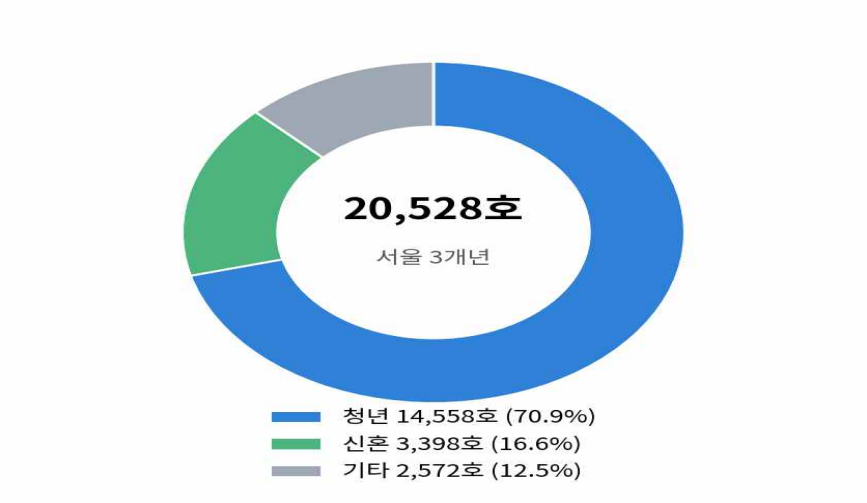
○ 자치구별 공급 물량은 동대문구 1,920호, 구로구 1,900호, 강동 1,861호, 강서구 1,638호 순이다. 서울 도심에 입주가 가능한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다양한 수요층에 폭넓게 대응할 방침이다.

□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매입임대사업처	주택매입	팀 장	강태영	(055-922-3431)
			차 장	박상규	(055-922-3438)
		주택공급	팀 장	이예희	(055-922-3433)
			차 장	김도관	(055-922-3458)

참고 | **향후 3년간 서울 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입주자 모집)**

□ 서울 25개 자치구 유형별 공급 비중



□ 서울 25개 자치구별 공급 물량(총 20,528호)

